

피서객 몰려드는 고흥 발포해수욕장 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추진

개발제한 엄격 숙박·편의시설 확충 불가능 郡, 용역 발주·설문조사 등 사전 준비 나서

고흥군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는 일부 해수욕장에 대해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은 140km(육상 40km, 해상 100km)로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발포와 나로도, 염포 등 3곳의 해수욕장이 포함돼 있다. 이들 해수욕장은 숙박시설 신축이 불가능한 자연환경지구로 묶여 있어 매년 여름철이면 밀려드는 피서객들

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가지 요금이나 기생을 부려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해수욕장내 화장실과 샤워장, 주차장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계약은 국립공원측과 체결도 못돼 있어 별도 예산을 확보, 쓰레기 처리 등을 맡고 있는 고흥군으로서는 불만이 높다. 특히 고흥군은 오는 2009년까지 38억원을 들여 관광자원과 문화 유적지

가 산재해 있는 도화면 발포 지역에 해수 풀장과 스파 체험장을 갖춘 워터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이어서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고흥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 변경은 10년마다 이뤄지므로 2010년 초에나 용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자연환경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와 취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 철

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흥군 관계자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육상지역 전체에 대한 공원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함께 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은 환경부 산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00년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자연환경지구에서 제외된 바 있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한 농가의 밭에 심어놓은 기장이 영글어 풍성한 가을을 예고하고 있다. 오곡 중 하나인 기장은 이제 농촌에서 조차 쉽게 찾기 힘든 추억의 향수 작물로 수확하고 남은 이삭은 빻자루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함평=박정원기자 py4079@

나주시 생활민원처리 '늑장'

가로등 보수 등 20건 방치 커피자판기 2번이나 털려

나주시가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 민원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고 있어 시

민들의 불만이 높다. 나주시는 지난달부터 가로등 보수에 대한 주민 민원을 20건 넘게 접수하고도 한달이 다 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 나주시 중앙동 백제약국 옆에 설치

돼 있는 가로등은 지난해부터 작동되지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더욱이 최근 이곳에 설치돼 있는 커피자판기가 2번이나 털리는 등 가로등 고장으로 밤 거리가 어두워지면

서 갖가지 사건·사고도 늘고 있다. 주민 김모(43)씨는 “나주시의 가로등 관리의 엉망”이라며 “나주시청 인사와 휴가철이 맞물려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선으로 인해 민원 처리가 늦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철저하게 민원 처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jung@

도서관서 하룻밤 광양 중마도서관 추첨 어린이 30명 이색체험

광양시 중마도서관이 추첨을 통해 어린이 30명을 모집,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양지역 초등학생 30명은 23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중마도서관 안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이들은 이날 밤 '도서관 알기 및 게임', '자기만의 소중한 책만들기', '장기자랑' '너를 보여줘', 책속의 보물찾기 '독서퍼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중마도서관측은 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의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문을 연 중마도서관은 부모와 함께하는 '동화구연'을 비롯해 '생활과학교실',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장대인형극', '어린이 DVD 상영' 등을 통해 독서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그림책 버스-파란 달구지'가 갑니다

순천시가 마을과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 도서관 '그림책 버스-파란 달구지'를 이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버스-파란 달구지'에는 동화책과 그림책 3천500여 권이 실려 있고 3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 차 안에는 방·난방 등 편의시설과 멀티동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농촌지역 유아들을 위한 한글 교육도 실시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시가 마을과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 도서관 '그림책 버스-파란 달구지'를 이달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림책 버스-파란 달구지'에는 동화책과 그림책 3천500여 권이 실려 있고 3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 차 안에는 방·난방 등 편의시설과 멀티동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농촌지역 유아들을 위한 한글 교육도 실시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목포시 '시민의 상' 후보 접수

목포시가 '2007년도 시민의 상' 후보자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접수한다. 목포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교육, 문화, 경제,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특정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목

포 시민 또는 내·외국인, 법인, 단체에게 수여한다. 각급 기관, 단체장 및 시의회 의원, 동장이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시민의 상은 올해 신설된 경제 분야를 비롯해 지역사회 봉사, 교육문

화, 체육, 효행, 특별 등 6개 부문이다. 시민의 상 수상자는 오는 10월 1일 유달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 45회 목포시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상패가 수여된다. 지난 1967년 제정된 시민의 상은 지금까지 79명에게 수여됐다. 문의 (061) 270-3238. /목포=임영춘기자 lyc@

가을이 영근다

가을이 영근다

"웰빙 수산물로 무더위 이기자"

갯장어·전복·낙지·넙치 등 여름 보양식품 선정

"웰빙 수산물로 무더위를 이기세요"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해남 해양수산사무소가 21일 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 현대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섭취해야 할 웰빙 수산물 4가지를 선정했다. 해남 해양수산사무소가 선정한 웰빙 수산물은 갯장어, 전복, 낙지,

넙치. 뛰어난 보양 식품으로 각광받는 갯장어는 단백질이 풍부해 담백한 맛을 내고, 비타민 A가 다른 어종에 비해 20배나 많이 들어있다. 회, 구이, 탕으로 먹을 수 있고 예로부터 강장, 강정식품으로 잘 알려져 왔다. 또 전복은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해 자양강장에 좋

고, 뇌신경과 시신경 피로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 낙지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더위에 지친 소에게 낙지 서너 마리를 먹이면 곧 일어선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좋은 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넙치는 소화기 잘 돼 환자와 노약자의 영양식으로도 좋으며 특히 풍부한 콜라겐 성분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상하기 쉬운 여성들의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해남=박정원기자 jo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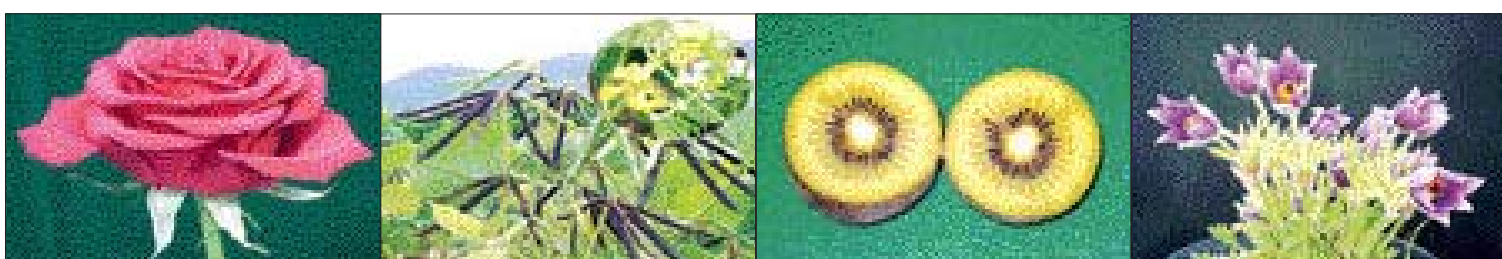
신안 천일염 대전·충청권 시장 공략

유성구 노은수산물도매시장에 특판코너 개설 1,800포대 납품

신안 천일염이 대전·충청권 공략에 나섰다. 신안군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수산물도매시장에 '신안군 갯벌 천일염 특판코너'를 개설하고 대전·충청권 주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판촉 활동에 들어갔다.

신안군 신의면 천일염 작목반은 최근 노은수산물도매시장 내 ㈜정원수산에 1차로 30kg 들이 1천800포대를 납품했다. 군은 이번 판촉활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 재정경제부의 천일염 특구지정 승인이 나면 신안 천일염의 우수성

을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신안군은 천일염 식품인증을 앞두고 전국 615개 식품 제조업체에 군수 명의의 신안 갯벌 천일염 판촉서한문을 발송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유통체제를 도입, 유통 마진 10%를 군민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장미 '베스트 레드' 녹두 '소현' 참다래 '해금' 할미꽃 '블루 사파이어'

녹두·할미꽃·참다래·장미 등 10개 신제품 전남도 농기원 '품종보호 출원'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난해 육성한 장미·할미꽃·참다래·녹두 등 4개 작목 10개 신제품에 대해 '품종보호 출원'을 마쳤다. 품종보호 출원 작목은 장미의 경우 베스트레드·탑핑크 등 5개 품종, 할미꽃은 블루 사파이어·호비 2개 품종, 참다래는 해금, 녹두는 소현·다산 2개 품종이다. 장미 신제품인 '베스트레드'와 '탑핑크'는 꽃 색이 선명하고 향기

무병에 강해 재배농가들의 로열티를 절감할 수 있으며, 녹두 '소현'은 향암과 향산화활성 등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할미꽃 '블루 사파이어'는 1년에

2차례 보라색 꽃이 피는 등 관상 가치가 높으며, 참다래 '해금'은 수입산 골드키위를 대체할 수 있다. 최형국 연구개발과장은 "이번 신제품 육성으로 로열티 절감과 향후

수확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우량종자 및 종묘를 대량 생산해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현재까지 녹차와 수출오이·마늘 등 11개 작목 46개 신제품을 품종보호 출원했다. /송기통기자 song@

광산구 '노인일자리 늘리기' 나선다

하남농협과 '광산 시니어클럽' 협약 ... 주유원 등 발굴

광산구가 '광산 시니어클럽'을 발족시키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하남농협(조합장 박종민)과 광산 시니어클럽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는 예산 지원 및 지도·점검을 맡고, 하남농협

은 노인 일자리를 발굴·운영한다. 6명의 전담 인원이 배치되는 광산 시니어클럽은 앞으로 노인들에게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립지원형 일자리는 주유원과 판매원, 가사도우미, 청소원 등 인

력과견형과 세탁방, 도시락사업, 유기농사업 등 시장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 6월 하남농협과 함께 1만909㎡의 밭을 확보했다. 이곳에서는 콩 등 무공해 작물을 재배, 두부 등 웰빙식품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활성화될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된 웰빙식품은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망을 통해 전국에 납품된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